No. 15 금리·환율 읽는 시간 5분

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왜 더 크게 흔들릴까?

금리가 오르면 먼 미래에 벌 돈의 현재 가치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. 가상의 1,000원으로 1년 뒤, 10년 뒤, 20년 뒤 받을 돈이 금리 3%와 5%에서 각각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성장주가 더 흔들리는 이유를 풀어 봅니다.

한 줄 결론

금리가 3%에서 5%로 오르면 1년 뒤 1,000원의 현재 가치는 1.9% 줄지만 20년 뒤 1,000원은 31.9% 줄어서, 이익이 먼 미래에 몰린 성장주가 더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음

확인할 숫자

기준금리, 예금금리, 이익이 나는 시기, 이자비용



사진: 한쪽 끝이 높이 들린 노란 시소, nzgabriel, Flickr.

목차

1.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의 가치가 달라질까?
2. 1년 뒤 1,000원과 20년 뒤 1,000원은 금리에 얼마나 다르게 반응할까?
3. 가상의 두 회사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?
4. 금리는 할인율 말고 또 어디로 영향을 줄까?
5.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늘 내릴까?
6. 금리 뉴스를 볼 때 던질 다섯 가지 질문

> 이 글의 숫자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. 특정 종목의 매수·매도 권유나 금리·주가 예측이 아닙니다.

기준금리 인상 뉴스가 나온 날, 성장주 위주로 파란 숫자가 유독 길게 이어진 시세판을 본 적 있을 겁니다. 같은 금리인데 어떤 주식은 덜 흔들리고 어떤 주식은 크게 흔들립니다.

그렇다면 금리는 주가에 어떤 길로 영향을 줄까요? 가상의 숫자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.

01

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의 가치가 달라질까?

주식의 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벌 이익을 지금 돈으로 바꿔서 더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미래의 돈을 지금 돈으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이 할인율이고, 금리가 오르면 이 비율도 올라갑니다.

쉬운 예로 은행이 1년에 5%를 주면, 1년 뒤 받을 1,050원은 지금 1,000원과 같습니다. 은행이 3%를 줄 때는 1년 뒤 1,050원이 지금 1,019원쯤입니다.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의 돈은 지금 기준으로 더 싸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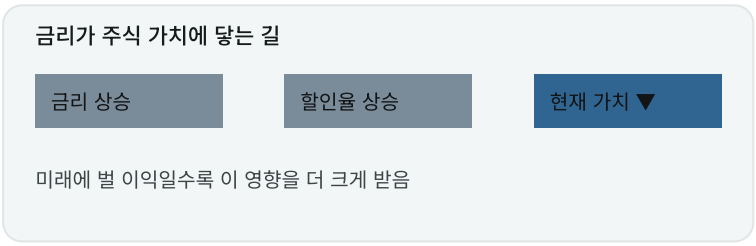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돈이 지금 기준으로 싸지는 흐름.

이처럼 금리는 주식의 가격표가 아니라 가치를 계산하는 자의 눈금을 바꿉니다.

02

1년 뒤 1,000원과 20년 뒤 1,000원은 금리에 얼마나 다르게 반응할까?

금리가 3%에서 5%로 오르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. 1년 뒤 받을 1,000원의 현재 가치는 970.9원에서 952.4원이 되어 1.9% 줄어듭니다.

10년 뒤 받을 1,000원은 744.1원에서 613.9원으로 17.5% 줄어듭니다. 20년 뒤 받을 1,000원은 553.7원에서 376.9원으로 31.9% 줄어듭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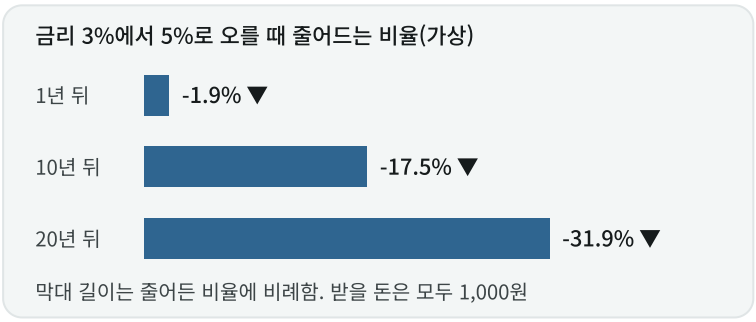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가상 예시. 받을 시기가 멀수록 금리 상승에 더 크게 줄어듦.

같은 1,000원인데 시기가 멀수록 줄어드는 폭이 커집니다. 이것이 성장주가 더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.

03

가상의 두 회사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?

가상의 회사 S는 이익이 거의 1년 뒤에 들어옵니다. 가상의 회사 G는 지금은 이익이 없고 이익의 대부분이 20년 뒤에 들어옵니다. 둘 다 받을 돈은 1,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.

금리가 3%일 때 S의 가치는 970.9원, G는 553.7원입니다. 금리가 5%로 오르면 S는 952.4원, G는 376.9원이 됩니다. S는 1.9%, G는 31.9% 줄었습니다.



사진: 회색 하늘 아래 연방준비제도 건물 정면, Ken_Mayer, Flick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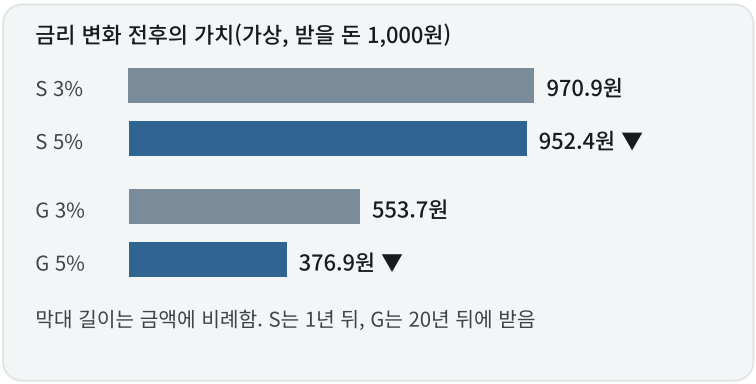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가상 예시. S는 1.9%, G는 31.9% 줄어 G가 훨씬 크게 흔들림.

이처럼 이익이 먼 미래에 몰린 회사일수록 금리 상승에 가치가 크게 줄어듭니다.

04

금리는 할인율 말고 또 어디로 영향을 줄까?

할인율 말고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. 하나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한 자산의 이자가 올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입니다. 예금금리가 올랐는데 주식에도 같은 수익을 기대하면 더 큰 위험을 질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

다른 하나는 이자 비용입니다. 빚이 많은 회사는 금리가 오르면 이익에서 이자로 나가는 몫이 커집니다. 이익이 아직 크지 않은 성장 기업일수록 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[확인 필요: 기업별 부채 구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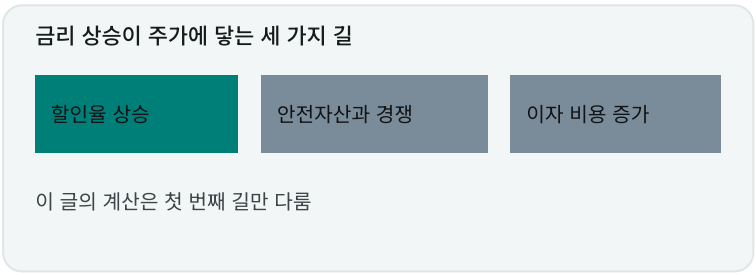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세 갈래. 앞의 계산은 첫 번째만 본 것임.

세 길이 한꺼번에 작동하면 시세판의 움직임은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.

05

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늘 내릴까?

그렇지는 않습니다.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라면 회사의 이익 전망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할인율 상승의 영향이 이익 증가로 일부 상쇄됩니다.

또 금리 인상은 대개 미리 예고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먼저 반영되기도 합니다. 발표 당일에 오히려 오르는 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의 계산은 방향을 이해하는 도구이지 주가를 맞히는 도구가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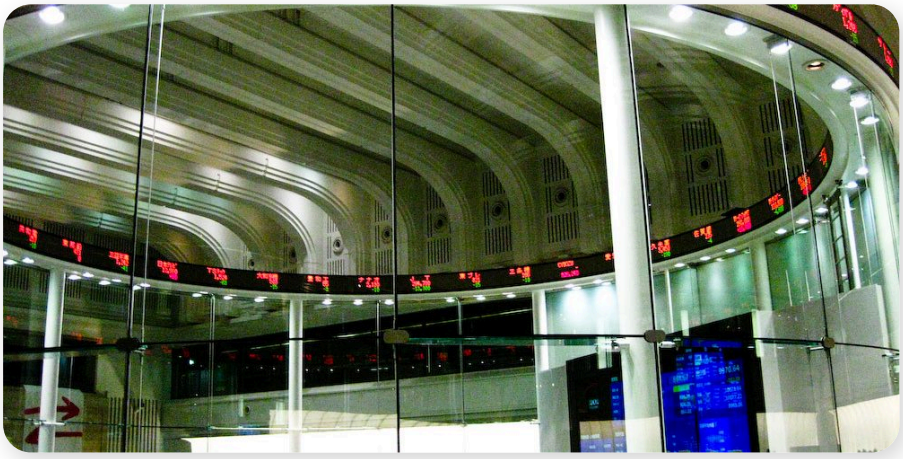


사진: 증권거래소 전광판, ehnmark, Flick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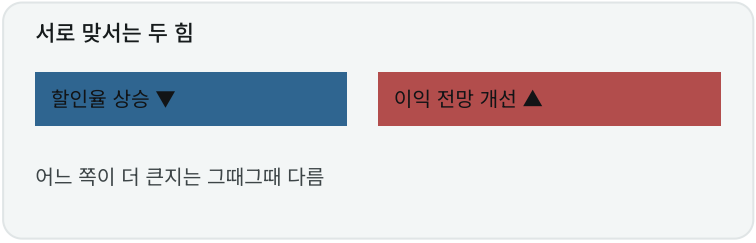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금리 상승 때 주가를 내리는 힘과 올리는 힘이 맞섬.

금리는 주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.

06

금리 뉴스를 볼 때 던질 다섯 가지 질문

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금리 뉴스가 나올 때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

1. **"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 가치가 달라지는가?"**
   → 미래에 벌 이익을 지금 돈으로 바꾸는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

2. **"어떤 주식이 더 크게 흔들리는가?"**
   → 이익이 먼 미래에 몰린 주식입니다. 가상 예시에서 1년 뒤 이익은 1.9%, 20년 뒤 이익은 31.9% 줄었습니다.

3. **"할인율 말고 또 어떤 길이 있는가?"**
   → 안전자산과의 경쟁, 그리고 이자 비용 증가가 있습니다.

4. **"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늘 내리는가?"**
   → 아닙니다. 경기가 좋아 이익이 늘면 일부 상쇄되고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.

5. **"이 계산으로 주가를 맞힐 수 있는가?"**
   → 맞힐 수 없습니다. 흔들림의 방향과 이유를 이해하는 용도입니다.

이처럼 성장주가 금리에 더 흔들리는 이유는 이익이 먼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보유 종목의 이익이 주로 가까운 시기에 나는지 먼 시기에 나는지 한 줄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

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[담당자 검토]

참고 자료

- 글에 쓴 회사 S, G와 모든 숫자는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기업 자료가 아님. 현재 가치 = 받을 돈 ÷ (1 + 금리)^햇수로 계산함
- 기준금리·예금금리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ECOS) [확인 필요: 기준 시점]
- 기업의 이자 비용·부채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의 사업보고서 [확인 필요: 기준 시점]

분류·태그 금리·환율 #금리 #밸류에이션 #성장주 #할인율

온라인 원문: https://www.stock-diary.kr/p/2026-11-15-auto-1400.html

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(생성형 인공지능)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,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.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「참고 자료」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, 허락 없이 복제·배포·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, 출처는 본문 캡션과 「참고 자료」에 밝혔습니다. [담당자 검토]